

1. 돈의 힘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나는 절대 돈에 휘둘리지 않겠다.”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그 패기는 점점 사라지고, 돈의 힘과 영향력을 실감하며, 돈 앞에서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삶 속에서 생존과 안전, 기회와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아프게 만드는 ‘없는 서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돈은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며, 사람들의 신뢰와 예배를 빼앗는 가장 무서운 ‘우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물질(돈)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물질적 소유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한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11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은 단순히 체념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적극적인 영적 태도입니다. 자족이 없으면 사람은 끝없는 비교와 집착 속에서 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자족을 배우면, 많은 적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한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절제 속의 향유’입니다.

전도서 5:19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수고의 열매를 즐기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향유는 곧 탐욕으로 변하고, 탐욕은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절제 속에서만 참된 기쁨이 됩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 입니다.

야고보서 1:27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18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성경은 물질이 단지 나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그 복을 흘려보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돕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족하고, 절제하며 나누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자족해야 하는지, 얼마나 절제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누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정해주지 않는 대신 그 판단을 각 사람의 신앙과 양심에 맡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물질관을 세우고,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설 수 있습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돈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던 순간, 혹은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_____

- 바울의 고백(빌립보서 4:11)을 읽을 때, 나는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기 가장 어려울까요? 자족을 훈련하기위해 지금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 _____

- "절제 속에서 즐기는 것"이 내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 _____
-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 최근에 누군가를 돕거나 나눈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_____
- 내 물질관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_____
-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은 때로 너무 큰 힘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종종 돈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비교와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절제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